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6차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에게 하신 연설 요약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은 인간의 친교와 자기 증여의 능력에 손상을 줍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01¹

저는 특별히 교황청 보건사목 평의회가 해마다 주관해 온 국제 회의에 또 다시 참석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 회의를 준비하신 피오렌조 안젤리니 추기경님과 그분을 도와 함께 해주신

협력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오신 과학자, 연구자, 의사, 사회학자, 신학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거스르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는 성 바오로께서 “우리는 희망을 거슬러 희망합니다”(contra spem in spem)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적절하게 숙고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요구되듯이 말입니다.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두 가지 현상은 그 자체의 심각성과 파괴적인 확산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02¹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과 절망 사이에는 이중의 연결 고리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알코올과 약물 남용의 저변에는 비록 저마다 그 원인인과 상황은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치의 부재와 자신감 부족, 곧 타인과 인생 전반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존재의 허무감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려 드는 데에서 마주치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들은 절망감을 점점 더 키우고 악화시킴으로써 마침내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의 공동체까지 함께 체념하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세월이 흐를수록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의 현상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가, 오늘날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때로는 정치적 이익에서 힘을 얻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잠복해 있는 사회적 역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반면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약 우두머리들은 오만하게도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희망을 거슬러 절망의 이유들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슬픈 현상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2코린 1,5 참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물과 알코올의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곧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을 상기하게 됩니다(루카 10,29-37 참조). 사실 약물 중독자들도 이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환상에 불과한 자유와 거짓 행복을 약속하며 그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죽음의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희생자들은 불행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기고, 몸과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자신의 양심 깊은 곳까지 침범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훼손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모든 희망을 놓고 싶은 이유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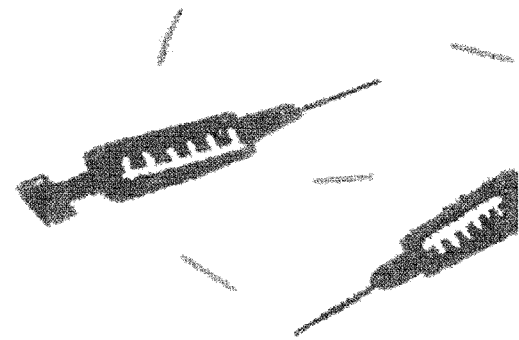
03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희망을 결단한 이유들이 있으며, 그 이유들은 희망을 거스르는 이유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거슬러 희망합니다. 실제로 오늘 날에도 복음의 비유에서처럼 개인적 희생과 때로는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련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저와 함께 공공시설과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그리하여 약물 중독의 예방과 약물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뿐 아니라 죽음의 거래상들을 합법적으로 고발 기소하고 도덕적 사회적 붕괴를 획책하는 조직망을 해체시키는 데에 투신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범위와 정도가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약물 중독이 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뿐만 아니라, 염려스럽게도

언제부터인가 어린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부패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또래와 어울려 약물 밀거래자가 되고 스스로도 약물 소비자가 되는 것은 불행히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 년 전에 국가나 국제 차원의 여러 공공 기관에 했던 간절한 호소를 되풀이합니다. 공공 기관들은 마약 시장의 팽창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마약 시장 투기꾼들의 이윤이 밝혀져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그들이 이용하는 수단과 수법이 규명되어야 하며, 끝으로 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해체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약물 현상은 육체적 심리적 안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친교와 자기 증여의 능력에도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04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생각하고 의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포기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불의입니다. 우리는 “약물 사용의 자유”나 “약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해할 권리도 없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인간 존엄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약물 현상은 육체적 심리적 안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친교와 자기 증여의 능력에도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경우에 특히 심각합니다. 그들의 나이는 인생에 눈을 뜨고 원대한 이상을 꿈꾸는 나이이며,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슬프고 근심어린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상에 불과한 비극적 경험의 유혹에 깨어 있으십시오! 저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왜 막다른 길로 뛰어들려 합니까? 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성숙할 기회를 버리려 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려 합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정직, 노동, 희생, 순수, 참사랑과 같은 이상 속에서 기쁨을 주

는 확신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현상은, 특히 종교적 신앙으로 조명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랑과 생명 같은 인간적 가치들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퇴치될 수 없으며, 희생자들의 치유와 재활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는 약물 중독자들을 괴롭히는 외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단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법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며, 용기 있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현상은, 특히 종교적 신앙으로 조명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랑과 생명 같은 인간적 가치들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퇴치될 수 없으며, 희생자들의 치유와 재활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05'

이 특수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교육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면, 인간 사회의 기원이며 토대인 가정의 위기, 청년 실업, 주택 문제, 사회 복지 사업과 보건 서비스, 교육 제도 등과 같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공공 기관의 몫입니다.

사회에서 복음의 누룩이 되고자 하는 교회는 사회적 재앙인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대항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람들과 언제나 한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총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비추시는 빛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더욱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서 이처럼 힘들고 용기 있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출처: John Paul II, "Drug Addiction and Alcoholism Frustrate the Person's Very Capacity for Communion and Self-Giving", Dolentium Hominum 19(1992 no.1), Pontifical Council for Health Care Workers, Vatican City, pp. 7-9.
번역: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임상사목연구소